
제43호 방송심의보고서

2019.10.18.~10.2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19. 10. 19.	시청률	0.000

【총 평】

<우리동네 개선문> 3회에서 다룬 아이템 키워드는 ‘소통’이었다. 갈등현장의 실마리를 풀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요소가 ‘소통’이라는 메시지로 전달됐다.

인천시 쇠뿔마을과 경남 양산시 삼성동에서 벌어진 민원 문제가 소통을 통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잘 보여주었다. 각각의 행정 자치기관은 지역 주민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사업 추진 계획으로 인해 주민과 갈등을 빚었고, 소통 부재는 기관과 주민간의 간극만 키워 해결점이 안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주민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정성 덕분에 해결 실마리를 찾아 가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화면에 담았다.

‘배다리 관통도로 20년 갈등 종지부, 소통으로 실마리’ 편은 벽에 부딪혔던 도로 개설 문제를 담당공무원이 그 마을에 상주하며 주민편에서 마음을 열고 소통한 결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사례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소통자세와 적극행정의 수범사례였다.

‘산단지역 악취민원 해결, 완충녹지 조성 확대’ 아이템은 공장부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아이디어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는 모범사례를 다뤘다. 공무원과 시의회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구성 및 내용】

갈등해소의 열쇠는 ‘소통’임을 강조하는 메시지 전달력이 돋보였다. 문제점 → 핵심 이슈의 논의 전개과정 → 갈등의 해결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포맷이 설득력과 흡인력을 높였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소통부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 동구 쇠뿔마을의 사례와 경남 양산시 북정대동 사례는 가슴을 연 소통이 해결의 열쇠였음을 보여주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도 한 몫 했음을 알 수 있었다.

■ ‘배다리 관통도로 20년 갈등 종지부, 소통으로 실마리’

인천 쇠뿔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을 두고 생긴 갈등을 공무원이 직접 해당 마을에서 1년간 거주하면서 주민과 소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낸 사연을 소개했는데, 행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잘 보여준 사례였다.

다만 인터뷰만으로 그런 노력을 소개하기보다는 직접 주민들과 접촉하고 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냈다면 느낌이 배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 산단지역 악취민원 해결, 완충녹지 조성 확대’

경남 양산시 산단지역 악취와 관련한 취재는 지자체가 주민 생활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밀어붙일 경우 생길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한 취재였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반영한 점은 좋았으나 해결의 단서를 찾기까지의 과정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19. 10. 19.	시청률	0.088

【총 평】

이번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에서는 분단된 남과 북을 드나드는 임진강의 풍경과 소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임진강에서 참게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 임진강에 소재한 고구려 성곽이었던 호로고루, 자연 본연의 모습을 잘 간직한 사미천의 생태, 그리고 임진강을 사랑하는 화가의 활동을 담았다.

【구성 및 내용】

임진강은 분단된 남과 북을 드나드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인적이 드물어 자연의 소리가 더욱 풍성한 임진강의 물길을 따라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았다.

■ 참게를 잡는 임진강 어부.

참게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의 모습을 담으며 그의 가족이 여기에 정착한 이유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참게요리와 함께 들어보았다. 가을에 먹어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참게만의 별미를 전하고 갓 잡은 참게요리의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를 담아냈다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호로고루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호로고루 유적지에서는 고구려와 신라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역사와 오랜 시간 남과 북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음을 자세히 설명해 유용했다.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임진강과 고랑포구의 번성했던 과거를 들려주는 역사해설과 함께 호로고루의 단단하고 묵직한 바람소리를 담아보았다.

■ 장남면의 사미천

자연 본연의 모습을 잘 간직하여 세계 여러 생태학자들이 주목하는 임진강 상류의 사미천을 방문하였다. 사미천은 비무장지대에서 흘러온 물로 인해 청정지역에서 자라는 한국 고유종들이 발견되고, 먹이가 풍부해 다양한 철새들도 관찰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인간의 인공적인 구조변경 및 간섭으로 임진강의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다.

【참고사항】



○ 출연자의 얘기를 효과적으로 살려주는 자막에 대한 고민 필요

- 04:05: 어린 참게
→ 어부가 말한 '치게'도 같은 표현임.
- 19:33 내년이면
→ 내년이나 후년이면

프로그램	탐나는 정책 탐나는 대한민국 2		
방송일자	2019. 10. 20.	시청률	0.018

【총 평】

문화의 달, 문화의 날을 맞아 외국인의 시선으로 ‘문화가 흐르는 나라-공연 예술정책’ 편을 방송한 기획력이 돋보였다. 문화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한국의 각종 예술 지원 정책이 상세히 소개된 부분이 긍정적이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확산으로 생활 속 문화향유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이 소개돼 정책알림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대학로에서 뮤지컬 공연 관람에 도전하면서 느끼는 ‘웰컴대학로’, ‘러쉬티켓’, 공연자막지원서비스를 체험하고 길거리 마술쇼를 체험하면서 느낀 한국의 공연 예술정책의 우수한 점을 드러낸 부분이 흡인력과 설득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독일통신원이 보내온 ‘라인강변 뒤셀도르프 폐허건물의 공연장 리모델링’ 사례는 벤치마킹할 만한 우수사례였고, 서교동 동사무소 건물을 개축하여 서교예술실험센터로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줘 만족감을 더해 줬다.

【구성 및 내용】

주52시간 근무제 확산으로 생활 속 문화향유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각종 정책이 소개돼 정책알림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긍정적인 기획이었다.

웰컴 대학로 행사 소개에서는 티켓박스를 통한 할인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소개하고 자막제공 등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고, 서울거리예술단 매직트레블 공연에서는 마술사 유노와 함께 버스킹 공연을 직접 해보고 서울거리공연단을 위한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마술 거리공연에서 ‘케시’씨의 즉석 마술공연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마술 버스킹 효과를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독일 뒤셀도르프 예술 정책을 소개하면서 라인 강 수변 공연과 폐허가 된 건물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를 소개했고,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를 통해 서교레코즈 행사를 체험하고 인디 뮤지션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지금은 보기도 힘든 음악테이프를 꺼내 들고 추억에 잠기는 부분이 있어서 복고풍 감성을 자극했다.

【참고사항】

서울시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특색이 있는 공연 정책이 많을 것 같은데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 약간 아쉬운 감이 있다.

마술사 유노를 소개하면서 ‘서울거리공연단 지원정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수혜 당사자인 유노에게 그 지원책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인터뷰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3		
방송일자	2019. 10. 20.	시청률	0.179

【총 평】

이번 방송에서는 도시에서 8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며 치열하게 살다가 서천 바닷가로 귀촌한지 5년이 된 강우영, 심미경 부부의 이야기를 다뤘다. 과거 도시에서 마음의 여유 없이 살았던 모습을 조명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담아내 진정한 귀농귀촌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했다. 이와 함께 귀촌으로 정착하기까지의 어려운 점이나 정착한 곳에서의 지역주민들과의 조화와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지역 사회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활동 사항도 더불어 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성 및 내용】

■ 우리는 매일 설레는 바다로 간다. - 강우영, 심미경 부부의 귀촌이야기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다보니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았던 부부가 삶의 여유와 자연과 함께 마음 편히 살아가기 위해 선택한 귀촌 5년차의 모습이 그려졌다.

누구나 귀촌, 귀농, 귀어를 꿈꿔보긴 하지만 쉽게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소소한 행복함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며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또한, 생업에 대한 귀농 5년차의 결과물 등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귀농을 실제 생각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현실적인 참고할 정보가 적었다.

이 프로그램이 귀촌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권장도 하는 취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도 궁금해 할 부분인데 현실적 정보는 너무 부족하다 느껴졌다. 부부의 일상만을 중심으로 그려져 자칫 귀촌 생활의 낭만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한 부분이 있다.

【참고사항】

해루질이라는 다소 위험한 레저 혹은 활동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이 해루질에 대한 위험성 및 안전대비 없이 도전할 수 있어 해루질에 대한 위험성, 안전 준비에 대해 주인공 부부의 설명이나 하단 자막을 통해 설명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제작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계절적인 요소도 고려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시청자 입장에서 10월 20일 방송을 보고 있는 시점이라면 부부가 9월 달력을 보며 이야기 하는 부분이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다.

프로그램	KTV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일자	2019. 10. 23.	시청률	0.015

【총 평】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즌2>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정책관련 오보에 대해 전문가와 통계 자료를 통한 팩트체크로 신속하게 대응해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와 오보 확산을 억제하려는 기획의도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가고 있다. 일본발 수출규제 건으로 촉발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지원 및 성과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산자부 소재부품총괄과의 이선헤 서기관이 출연하여 기사에 제기된 언론의 의문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항목별 조목조목 팩트체크를 해주었고 동시에 이덕근 교수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지원 성과 평가 및 해외의 극복 사례 등을 소개해주었다.

【구성 및 내용】

■ 소재부품장비지원, 말잔치만 벌였다?

오늘 방송에서 '정부대책 발표 된지 100일이 지났다'라는 문구부터 잘못됐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발표는 지난 8월 5일에 있었으며 이제 두 달째 접어들고 있다고 명확히 밝혀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정부정책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한 곳도 없다, 외국 기업 기술 도입 대책 성과가 없다 등의 잘못 보도된 기사들의 그릇된 점을 지적하고 산자부 이선헤 서기관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어 팩트체크 신뢰도를 높였다.

【참고사항】

팩트체크에 시청자들이 제대로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시청자 게시판이나 제보를 통해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을 통해 제대로 인지하게 됐다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프로그램의 순기능이 더 돋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막오류】



- 산자부 올해 8월 브리핑 영상자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 강화 대책 합동브리핑
(2010.08.05.) → (2019.08.05)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19. 10. 23.	시청률	0.091

【총 평】

KTV 대한뉴스는 뉴스의 '깊이'와 '다양성' 면에서 강점이 많은 KTV 대표뉴스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번 방송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원인 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 합동 포획 등 주요뉴스에다 건강, 입시, 정책, 생활정보 등 갖가지 이슈를 다뤄 시청자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이낙연 총리의 일왕 즉위식을 하루 앞두고 이에 대한 뉴스와 함께 '유용화의 오늘'의 눈'에서 이를 심층 분석한 부분이 주목도를 높였다. 화제성 뉴스를 풀이하는 뉴스링크와 S&News도 수용자를 고루 염두에 둔 아이템으로 시청층 확산에 대한 순기능이 기대된다. 오늘의 브리핑도 뉴스의 현장성이 살아나고 정책당국과 국민의 커뮤니케이션면에서도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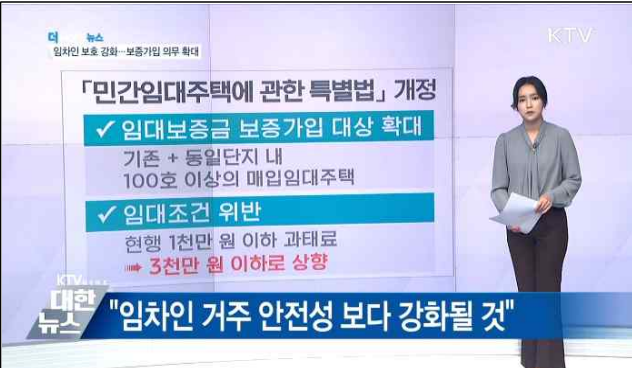
【구성 및 내용】

'공공요금 감면서비스 확대'에서 '아파트 관리비 공개 확대'까지 '더More뉴스'는 실생활과 밀접한 또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 박천영 기자의 자상한 리포트가 특징적이었다. 뉴스링크3'는 스페인 국왕의 방한과 관련한 키워드와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연탄쿠폰'이라는 키워드도 시의성과 내용의 연관성이 잘 매치가 이뤄져 전달력을 높였다.

'오늘의 눈'은 일왕즉위식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아냈는데 아쉬운 점은 관점이 빠져있었다는 점이다. '오늘의 브리핑'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액상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경고와 향후 조치에 대한 발표내용을 전했는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유의미했다고 생각한다.

【자막오류】

뉴스 내용 자막 중에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는데 04:23 '**일각서는** 대화 여지 내비친 점에 주목'에서 '**일각에서는**'이라고 했어야 했다. 12:38 '2차 멧돼지 합동포획, **멧돼지 감염** 확산 방지'에서 '멧돼지 감염'이 아니고 '**돼지열병**'이라고 했어야 정확한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p>29:15 “거주 안정성 보다 강화 될 것” → 침표(,)가 빠져 메시지 불명확 기자의 리포터 상으로는 “거주 안정성, 보다 강화 될 것”이라고 표기했어야 정확했을 것 같다.</p>
---	--

프로그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방송일자	2019. 10. 24.	시청률	0.001

【총 평】

이번 방송에서는 이날 열리는 ‘이낙연 총리-아베총리 만남’을 헤드라인으로 올리고 뉴스와 함께 전문가 대담으로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이 눈에 띄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 파주에서 또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소식과 멧돼지 합동 포획에 나섰다는 뉴스를 속보형식으로 처리해 긴박성을 높였다. 다음달 열리는 첫 한국-메콩 국가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초점과 기대효과를 진단해본 기획도 경제협력과 외교 안보면 중요성에 비춰 긍정적이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권고했다는 소식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뉴스였다. 이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내신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현장 연결한 <브리핑 현장>도 뉴스의 현장감을 살리고 우리나라 외교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알게해준 의미있는 코너였다.

【구성 및 내용】

DMZ 경계에서 계속 발견되는 멧돼지 폐사체의 위험성과 정부의 대책을 집중보도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임소형기자와 현장을 연결해서 리포트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정보의 체감도를 높였다.

전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액상형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와 유사 담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증진법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대책을 전했는데 저간의 우려를 다소 잠재울 수 있는 내용적인 리포트였다.

‘한.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한다’에서는 일반에겐 생소할 수밖에 없는 ‘메콩국가’ 그리고 ‘메콩경제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지난 2011년의 ‘한강선언’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넓혀나가는 것이 현 정부의 외교통상 정책의 큰 줄기라는 점에서 유의미했다.

이낙연 총리와 아베총리의 만남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전망해본 두 번째 서울스튜디오 대담은 내용적으로는 무리 없이 잘 처리되었으나 연사로 출연한 이인철 소장은 경제평론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을 다루기에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신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한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정부 외교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참고사항】

‘월드투데이’ 자막에서 ‘런던 시신 39구 실은 컨테이너 발견’이라고 했는데 ‘**런던 컨테이너에서 시신 39구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또, 영상뉴스에서 ‘시민들의 헬기소리 경험을 위해 마련된...’이란 자막은 그 자체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